

세 분의 수녀님 환영식 교우들 기대감 넘쳐



사진 좌측부터 현월심(수산나), 류현숙(루시아), 정미랑(데레지나) 수녀님

산하에서 제일 낙후된 본당은 청소년들의 신앙심이 낮아 성소 지원자가 전무인 상태에서 새로 부임하신 수녀님들은 그간 광주 살레시오 학교장을 역임하는 등의 경력으로 본당 청소년들에게 적신호에서 청신호로 바꾸어 줬다고 할 수가 있다. 현 수산나 수녀님과 정 데레지나 수녀님께서 3월 2일(토) 오후 3시 어린이 미사와 토요일 오후 6시 중고등부 미사에 참석하시어 청소년 현황과 실태 파악은 물론 토요일 청년연합회에 참석하면서 많은 관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본당은 90년 후반에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의 수녀님들께서 상주하며 성무 활동을 하신 기틀이 현재 사제직으로 신품 성사를 받으신 다섯 분이 하느님의 어린양으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을 교육할 전문 수도자가 없어 성소 입문할 인재가 현재 전무인 상태에서 본당 교우들은 세분의 수녀님 환영식을 보고 새로운 기대감에 차 있다.



다락방 기도회 체나콜로 기도로 형제애를 실천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신심생활분과 산하 체나콜로 기도회는 3월 3일(주일) 오후 7시 교육관 2층 요한 방(201호)에서 안혜람(체칠리아) 단장 외 10명이 모여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가 열렸다. 체나콜로란? 마리아 사제운동 하는 기도 모임으로 2천년 전 사도들이 성모님과 함께 모여 성령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한 것처럼 마리아 사제운동에 참여하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오순절 체나콜로에서 두 번째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성모님과 기도하고 성모님께 봉헌을 생활하여 형제애를 실천하는 기도회 모임이다.

